

“국민 생명·재산 보호 대비 태세 갖추겠다”

오병석 신임 육군 31보병사단장

“장병 한사람이 소중한 자산…전투력 발휘 핵심” 강조
상황적 최전방 작전환경 인지 현장작전 종결태세 완비

“31사단이 지리적으로는 후방에 있지만 상황적으로 최전방이라는 작전 환경을 명확히 인지해서 현장작전 종결태세를 완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병석 제40대 육군 31보병사단장은 최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나섰다.

오 사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육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사람으로 장병 한사람, 한사람이 사단 전투력을 발휘하는 핵심”이라면서 “사람 중심의 선진 병영문화를 선도해 ‘창의적 최정예 충장부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순간도 3천여km에 달하는 해안 경계 작전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내륙 각지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충장부대 전우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보낸다”면서 “지난 24개월 동안 탁월한 리더십과 열정으로 사단의 전투력을 한 단계 발전시킨 최순진 장군에게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에 이거해 제40대 육군 31보병사단장의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작전사령이 부여한 명예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창의적 최정예 충장부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싸울 수 있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군의 최우선 임무”라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임하고 안전대



오병석(오른쪽 두번째) 제40대 육군 31보병사단장은 최근 취임식을 갖고 “사람 중심의 선진 병영문화를 선도해 창의적 최정예 충장부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31보병사단제공)

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열변했다.

또한 후방에 위치하지만 상황적으로 최전방이 될 수 있는 작전환경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사단장은 “지리적으로는 후방에 있지만 상황적으로는 최전방이라는 작전환경을 명확히 인지하고 완전한 해안경계작전을 통해 현장작전종

결태세를 완비하겠다”면서 “민·관·군·경·소방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해 확고한 통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 사단장은 “훈련을 거듭하면서 부대기풍과 5관3략을 몸소 실천해 장병들이 보람찬 군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혔다. /오복기자



남도포럼, 박동기 소장 초청 정례포럼 성료

421세기남도포럼(상임대표 오수열 조선대 명예교수)은 지난 15일 광주 서구 라레스타 연회장에서 박동기 남덕현대사연구소장을 초청, 제249회 정례포럼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남도포럼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포럼에서 박 소장은 ‘광주·전남 현대사 숲은 이야기: 인물과 현장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현대사 연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소장은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에서부터 해방 후 건준결성, 여운 사건, 빨치산 투쟁 등 지역의 현대사를 현장사진과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오수열 회장은 올해 정례포럼을 마치면서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모임과 집회를 갖기가 힘들었지만 남도포럼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정례포럼을 차질없이 진행해 왔다. 2023년에도 포럼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채만기자



광주도시공사-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 협약

광주시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최근 고려인 마을종합지원센터와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과 생명 존중의 일환으로 화재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호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방안전용품

등 제공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활동 ▲고려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호교류 ▲양 기관의 발전에 위한 협력사항 등을 수행기로 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광주 대표공기업으로서 광주시민의 행복과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경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광주지방법검찰청 목포지청과 목포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18일 “최근 2022년 골목길 따라 사랑의 연탄 나눔과 어려운 가정에 쌀과 라면 등 나누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목포시 달성 54번길 7-1 일대에서 추운 겨울, 연탄과 더불어 생활하는 범죄 피해자 가정과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과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사로 추진됐다.

연탄 배달차가 집 앞까지 올라갈 수 없는 골목길에 살고 있는 7가정에 난방유·연탄 등을 목포지청 지정장과 검사, 수사관 및 이혁영 범죄피해지원센터 이사장과 센터 위원,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직접 릴레이식으로 옮겼다.

/목포=정해선기자

여수산단공장장協, ‘김치 대축제’ 5천만원 후원

여수시는 18일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회장 금호석유화학 공장장)가 연말연시를 맞아 겨울을 준비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125개소에 5천만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여수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기명 시장과 장갑중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김장김치 후원은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자원 연계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연합회(회장 김진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돼 각 시설에 고루 나눠졌다.

특히 시설별 배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근 전남체육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설의 유형과 수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시설 55개소는 완제품(330박스)으로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김치 담그기를 희망하는 시설 70개소에는 절임배추와 양념을 지원해 효율성을 높였다.

장갑중 협의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 나눔행사가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가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후원과 나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여수 발전에 함께 동행하는 협의회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담양 양지교회·쌍교숯불갈비, 취약계층 온정 전달

담양군 봉산면 양지교회와 쌍교숯불갈비는 최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 70세 이상 8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2천만원 상당의 패딩조끼를 전달했다.

패딩조끼는 양지교회와 쌍교숯불갈비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매년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쌍교숯불갈비 김창희 대표는 매년 1천만 원씩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봉산면에 지정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5년째 주

거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지원, 집 안팎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어르신 안부살피기 유제품 지원과 결식우려 취약계층을 위해 돼지갈비와 닭갈비를 지속 후원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고진성 봉산면장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후원해주신 양지교회와 쌍교숯불갈비에 감사드리다”며 “따뜻한 마음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돼 추운 겨울 잘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주전남병무청, 해군 3함대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최근 대한민국 남방해역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해군 제3함대를 방문해 병역이행 응원메시지와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41일간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응원메시지를 전달해 병역을 당당히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김용무 청장은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보내기 행사가 참여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긍심



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과학기술 발전’ 감사패

윤병태 나주시장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이하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연합회는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국제회의장에서 “2022년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 혁신 포럼·과학기술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최용국 회장은 광주·전남 과학기술 역량 발전과 과학기술단체 육성·협력에 힘써온 공로로 윤병태 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윤 시장은 호남권의 열악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와 연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핵융합로 실증로 가열 중성입자 음이온원 시험시설’, ‘인공태양 연구소’ 등 국가대형연구시설 나주 혁신도시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나주=정승환기자

또 전국 유일의 ‘공기업형’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중·장기 발전 전략 추진, 전력 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자문위원회 출범 등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다.

윤 시장은 “광주·전남 공동 성장 거점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전, 지스트, 켄텍,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등 국가 대형 연구시설 유치를 다해 광주·전남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나주=정승환기자



황우정 녹색에너지연구팀장 ‘산업포장’ 수상

황우정 녹색에너지연구원 일자리지원센터 팀장이 최근 “2022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일자리 창출 유공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황 팀장은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에서 S등급의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인 청년 고용 촉진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전남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재정기자



장흥경찰·청소년선도위, 장학금 전달식

장흥경찰서와 청소년선도위원회는 18일 “장흥군 관내 초·중·고 모범학생 6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장학금 전달식은 장흥군 28개 학교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6명(고등학교 1명, 중학생 3명, 초등학교 2명)을 최종 선정하고 전달식을 진행했다.

김산호 장흥경찰서장은 “청소년선도위원회와 협력해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남부소방, 중대산재 예방·의무이행 교육

광주 남부소방서는 18일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산재예방 예방 및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 방지 등 직장교육과 병행해 실시했다. /오복기자